

# 도시 및 농촌 거주자의 이혼에 대한 태도\*

## Urban-Rural Differences in the Attitudes towards Divorce\*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한경혜  
농촌생활연구소  
연구사 이정화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

Professor : Han, Gyoung-Hae  
National Rural Living Science Institute

Researcher : Lee, Jeong-Hwa

### ◀ 목 차 ▶

- |            |          |
|------------|----------|
| I. 문제제기    | IV. 연구결과 |
| II. 선행연구고찰 | V. 결 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 Abstract >

As the divorce rates in Korea have increased dramatically in recent years, it has been assumed that the attitudes towards divorce changed as a consequence. It has been proposed that people have become more accepting of marital dissolution as an alternative to unhappy marria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examine the assumption and to explore whether there is a rural-urban differences in the attitudes towards divorce. The data were gathered from 716 respondents who reside in Seoul and 593 respondents who reside in rural areas, using the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data analysis revealed that there exists significant rural-urban differences in the attitudes towards divorce in some aspects, suggesting the gaps in the cultural changes. Yet, rural-urban residents seems to share the attitude that one should not sacrifice personal happiness to maintain an unhappy marriage for the shake of obligation and traditional family norm.

**주제어(Key Words):** 이혼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s divorce), 도시-농촌 차이(urban-rural differences), 이혼(divorce)

\* 이 연구는 2002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부설 생활과학연구소의 연구비를 일부 지원받아 수행되었음.

## I. 문제제기

최근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1년 한 해에 13만 5천쌍이 이혼하였다(한국일보, 2002). 하루평균 3백 70쌍이 이혼한 것으로, 전체 이혼건수가 2000년에 비해 12.5%나 증가한 수치이다. 2001년 현재 우리나라의 이혼은 인구 천명당 2.8건으로 OECD 회원국 중, 미국(4.2건) 영국(2.9건)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한국사회에서 이혼은 이제 특별한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일이 된 듯 하다. 가족 해체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 여겨지는 이혼율의 이러한 급격한 증가추이는 한국가족의 현주소에 대한 많은 학문적, 대중적 우려와 관심을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급격한 한국사회의 이혼율의 증가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집합적 수준에서 이혼율의 증가를 설명하는 요인으로는 흔히 산업화와 도시화,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증가 등과 같은 사회구조적 특성이 지적된다. 그렇다면, 개인 수준에서 이혼에 이르게 되는 사유는 무엇일까? 개인수준에서의 이혼사유의 시대적 변화를 고찰한 이현송(1999)의 연구에 의하면, 과거에는 외도, 폭행과 같이 결혼관계의 근본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의 이혼이 많았던 반면, 점차 부부간 의사소통이나 이해부족과 같은 정서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이혼이 대안으로 여겨지는 등 이혼사유가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혼행동의 변화추세에 대하여 이현송(1999)은 “행복하지 못한 결혼생활에 대한 해결대안으로 이혼을 생각하는 비중이 높아진 결과”, 즉 이혼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사회변화에 있어, 행동변화와 태도변화 중 어느 것이 선행하는가 하는 점에는 학자마다 관점을 달리한다. 태도의 변화가 행위변화의 동인이 된다고 보는 학자도 있고, 행위변화가 일어난 후 태도의 변화가 뒤를 따른다고 보는 관점도 있다. 이혼의 다양한 사유에 대한 허용적 태도의 증가가 반영되어 이혼율의 증가로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이혼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태도가 허용

적인 방향으로 변화된 것인지 하는 인과관계를 해명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인과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에 이론이 존재하지만, 이혼율의 증가로 나타나는 행위의 변화가 이혼에 대한 태도의 변화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한다.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완화되고 불행한 결혼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혼을 바라보는 관점이 한국사회에서 점차 수용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한국갤럽을 비롯하여 이혼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조사결과들도 이혼에 대한 허용적 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조사는 주로 20, 30대의 젊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나 유의추출로, 일반화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진 경우가 많다. 또한 대개의 경우, ‘불행한 결혼을 참고 사는 것 보다 이혼하는 것이 낫다’는 식의 이혼에 대한 일반적인 허용도를 묻는 단일문항으로 이혼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혼이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의 관련성 속에서 이혼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혼에 대한 일반적 태도가 어떻게 구체화되어서 이혼행동 및 이혼 자를 바라보는 시각에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혼의 다양한 배경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혼에 대하여 비교적 허용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에는 부정적일 수 있으며, 이혼사유로서의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남성의 외도인가 아니며 여성의 외도인가에 따라 태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대표성을 가진 전국 표집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이혼에 대한 전반적인 허용도와 함께 다양한 이혼사유와 관련하여 상황에 따라 이혼에 대한 허용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나누어 조사하였다.

한편, 이혼율이 증가하고 이혼에 대한 태도가 허용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혼자가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이혼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편견인 것으로 나타난

다. 아직도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것이 정상적이고, 살아가는데 가장 좋은 방식'이라는 의식이 강하게 남아있고 이러한 삶의 방식에서 이탈한 사람들은 비정상적이거나 실패한 사람으로 여기는 의식이 뿌리깊다. 결혼 및 가족에 대한 의식과 규범이 변화된 부분과 변화되지 않은 부분이 혼재하면서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러한 영역간 변화속도의 불일치를 우리는 '문화지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변화속도의 차이는 특히 산업화, 도시화의 속도에 있어 차이가 나는 농촌, 도시 지역간에 크게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에 비하여 농촌지역이 변화의 속도가 느리고 전통적인 가치,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실제로 이혼율에 있어서도 농촌의 경우가 도시보다 조 이혼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0). 그러나 이혼에 대한 태도에 있어 도시와 농촌지역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실증조사를 통하여 파악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혼에 대한 태도에 대해 도시와 농촌을 비교함으로써 이혼에 대한 태도가 우리사회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이라는 지역적 차이가 이혼태도에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고찰

Thornton(1989)은 이혼율의 증가를 첫째,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가족행동 관련 규범의 힘의 약화와 둘째, 다양성을 인정하는 경향의 증가, 즉 '받아들여지는 행동의 범위'가 확장되었다는 두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즉 과거에 비하여 가족생활·가족행동에 관한 규범적 강제가 약화되고, 개인의 선택의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도, 결혼과 가족에 대한 전통적 규범의 약화 등 사회 전반적인 변화와 함께, '규범에의 순응'을 강조하기보다 '개인적 상황에 따른 선택'으로서 이혼에 대한 허용적 태도가 확산되었을 것으로 추론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위

도, 폭행과 같이 결혼관계의 근본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나, 경제적 문제, 부양의무를 게을리함 등과 같은 수단적 이유가 이혼사유를 주종을 이루었던데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 근본적인 요소로 이혼사유가 다양화되고 있다는(이현승, 1999) 점은, Thornton이 지적한 변화 추세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겠다. '고통스러운 결혼'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뿐만 아니라 '행복하지 않은 결혼'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혼을 생각하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의 변화가 얼마나 이혼에 대한 태도변화와 병행되어 진행되었는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별로 없다. 앞에서 지적한대로, 태도가 변화되었을 것이라는 논의는 많지만, 대표성 있는 표집을 대상으로 이혼과 관련된 태도를 조사한 체계적 실증연구가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혼에 대한 통계치와 이혼태도 문항을 조사의 일부분으로 포함하는 소규모 조사를 통하여, 이혼에 대해 과거에 비하여 허용적인 태도가 증가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는 정도이다. 예를 들어 결혼기간이 20년 이상된 부부의 이혼이 1990년에는 3.9%에 불과하였으나 2001년 11.3%로 3배나 증가하여(통계청, 2002), 이혼이 결혼초기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가족생활 단계에 걸쳐 나타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이혼이 더 이상 '자녀 없는 젊은 부부의 무책임한 행위'가 아니며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일본에서도 지적되고 있는데 '나리타 이혼'으로 일컫는 신혼여행직후의 이혼이 증가하는 현상과 '황혼이혼'의 증가원인 중의 하나가 이혼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줄어들고 있음에 기인한 것이라고(손승영, 2000) 한다. 실제로 90대 할아버지의 가부장적 권위주의 때문에 40여년의 결혼생활 끝에 이혼 소송을 내 '황혼이혼' 논란을 일으켰던 70대 할머니가 승소한 후, '황혼이혼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설문에 응한 네티즌의 58%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sup>1)</sup>. 찬성한 이유로 '나이에

상관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라는 입장을 취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고 한다(한국경제신문, 2000). 제주도에서의 이혼의 원인을 밝힌 권귀숙(1998)의 연구에서도 이혼에 대한 문화적 가치가 제주도의 이혼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한 바 있어서 이혼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실제 이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한국사회에서 이혼인구의 수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는 상황에서 이혼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였다는 논의는 무성하나, 이를 실증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혼을 주제로 하는 실증연구의 수가 우선,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소수의 연구들도 주로 이혼한 부부를 대상으로 이혼의 원인이나 이혼 후 적응과정에 치중하거나, 이혼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관한 논의를 주로 하였다. 따라서 이혼행동의 변화가 이혼에 관한 태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이혼율의 증가가 이혼에 대한 허용적 태도의 확산과 함께 진행되었는가 등의 중요한 질문에 대해 아는 바가 별로 없다. 이혼태도는 보다 근본적인 수준에서 결혼과 이혼, 재혼과 관련하여 사람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혼에 대한 태도는 또한 이혼 후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가족스트레스와 대응이론(Hill, 1949; McCubbin and Patterson, 1982)에서 이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누적 스트레스,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자원과 함께 스트레스적 사건에 대한 정의를 들고 있다. 스트레스적인 사건을 겪은 사람들의 그 사건에 대한 태도가 이혼 후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사람보다 자신의 이혼을 도덕적(moral) 실패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혼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은 자유주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 보다 결혼 해소 후 우울증에도 잘 빠지고 덜 행복해한다(Booth and Amato, 1991). 더구나, 이혼적응에 있어서 생활수준이 하락한다거나 이

사, 친구를 상실하는 것과 같은 스트레스는 상대적으로 예측력이 높지 않았고 교육수준 같은 개인적 자원도 이혼 적응을 용이하게 하지 못한 반면 취업, 현재의 소득과 더불어 특히 사람들의 이혼에 대한 태도가 일관되게 이혼적응을 더 잘 예측했다는 보고(Wang & Amato, 2000)는 이혼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냐가 이혼 후의 적응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혼에 대한 태도가 결혼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속 결혼에 가치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결혼에 문제가 있을 때 이를 해소할 수 있다는 생각은 사람들에게 결혼생활에 시간과 에너지를 덜 투자하게 하고 부부간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시도를 더 덜하게 한다는 것이다(Amato & Rogers, 1999). 만족스럽지 못한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증가하여(Glenn, 1996; Thornton, 1989) 평생결혼 개념이 감소했으며 이러한 이혼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는 결혼을 해소하기 쉽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혼에 대한 태도는 이혼 결정, 이혼 후 적응 뿐 아니라 결혼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혼에 대한 태도는 이혼 후 적응 뿐 아니라 결혼관계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며,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기대와 규범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성 있는 전국규모의 표집을 대상으로 하여 이혼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국내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이혼에 대한 태도를 도시와 농촌 거주자를 대상으로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전반적인 이혼에 대한 태도, 이혼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상황별 이혼에 대한 태도 및 자녀와 관련된 이혼에 대한 태도에 있어 도시와 농촌 거주자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1) 조사기간: 2000년 9월 6-7일 조사대상: '다음' 회원중 3천8백94명, 조사기관: 다음  
조사방법: 다음 사이트에서 설문조사

### I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도시지역을 대표하는 서울시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10대에서 60대까지의 인구를 대상으로 이혼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는 연구이다. 이혼관련 기존 연구들이 대부분 소규모의 임의표집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일반화가 어렵다는 중대한 제한점이 있음에 주목하여 이 연구는 서울시와 농촌지역에서 대표성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2 단계로 진행되었다.

먼저 도시지역의 경우 서울통계연보<sup>2)</sup>를 토대로 해서 성(性), 연령, 지역, 교육수준, 결혼지위를 고려해서 720개의 표본을 추출하여 비례적 층화 추출을 하였다. 조사대상자를 선정한 후 본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전반적인 문항내용을 검토하고 문항의 양호도를 살피기 위하여 1997년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10대부터 60대에 이르는 남녀 각 10명씩, 총 120명을 대상으로 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문항을 수정한 후에 1997년 12월 20일부터 1월 10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여대생으로 구성된 35명의 조사요원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응답자를 면접하여 질문지에 답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 결과, 계획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연령층의 경우 다시 보완하는 방식으로 추가조사를 1월 20일부터 1월 31일까지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총 716명의 질문지를 회수하였다.

농촌지역 조사는 통계청(1995)에서 발간한 인구주택 총조사보고서의 읍 면이하 지역의 인구수를 토대로 지역을 할당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예비조사는 1999년 4월에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1999년 6월 22일부터 7월 12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인구비율에 따라 경기도 120명, 강원도 48명, 충북 36명, 충남 84명, 전북 48명, 전남 84명, 경북 96명, 경남 96명으로 612명을 조사하였다. 이중에서 593명의 자료가 분석에 이용

되었다.<sup>3)</sup>

#### 2.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분석 방법은 먼저, 이혼에 관한 허용도와 상황에 따른 이혼관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백분율과 평균을 구하였다. 다음으로, 이혼에 대한 태도의 도시/농촌간 차이를 파악하고자 교차분석으로  $\chi^2$ 검증을 하였다.

#### 3.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1>, <표 2>에 각각 도시와 농촌지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도시와 농촌이라는 지역의 특성상 도시거주자에 비해 농촌 거주자의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은 낮았으며, 직업지위 구성에서도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 III. 연구 결과

#### 1. 전반적인 이혼에 대한 태도

‘불행한 결혼을 참는 것보다 이혼하는 것이 낫다’는 진술에 대해서 도시와 농촌 모두 높은 찬성도(AR=agreement ratio)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행한 결혼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혼을 바라보는 시각이 도시와 농촌 모두에서 상당정도 자리잡은 것을 알 수 있다. 결혼은 어떤 이유로도 깨어서는 안된다는 전통적 의식은 이제 도시와 농촌 어느 곳에서도 주된 규범의 의미를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1996년에 출판된 제36회 [서울통계연보]는 1995년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의 인구분포를 집계한 것이나 혼인상태별 인구는 1990년 자료가 제시되어 있어 1990년 분포에 따라서 표집을 하였음.

3) 자료수집방법과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보다 상세한 자료는 옥선화외(1998, 2000)를 참조하기 바람

〈표 1〉 도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716)

특 성	급 간	빈도 (%)
연령	10대	80(11.2)
	20대	202(28.2)
	30대	188(26.3)
	40대	125(17.5)
	50대	86(12.0)
	60대	35( 4.9)
교육수준	무학/초졸 이하	47( 6.6)
	중 졸	80(11.2)
	고 졸	337(47.1)
	전문대이상	252(35.2)
소득수준 (평균소득: 265만원)	150만원이하	140(19.6)
	250만원미만	204(28.5)
	350만원미만	220(30.7)
	350만원이상	152(21.2)
종교	기독교	266(38.0)
	천주교	84(12.0)
	불 교	151(21.6)
	종교 없음	199(28.4)
성별	남성	368(51.7)
	여성	344(48.3)
결혼형태	미혼	220(30.7)
	초혼	474(66.2)
	재혼	4( 0.6)
	사별	18( 2.5)
직업형태	주부	154(21.8)
	은퇴·무직	35( 5.0)
	전문·경영	49( 7.0)
	사무직	174(24.7)
	생산·기능·서비스	27( 3.9)
	자영업 학생	101(14.3) 125(17.6)

〈표 2〉 농촌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593)

특 성	급 간	빈도 (%)
연령	10대	79(13.7)
	20대	105(18.2)
	30대	98(17.0)
	40대	100(17.4)
	50대	96(16.7)
	60대	98(10.0)
교육수준	무 학	21( 4.1)
	초졸 이하	135(26.8)
	중 졸	83(16.5)
	고 졸	161(32.0)
소득수준 (평균소득: 157만원)	100만원이하	248(42.0)
	101-150만원	136(23.1)
	151-200만원	111(18.8)
	201만원이상	95(16.0)
종교	기독교	158(26.8)
	천주교	37( 6.3)
	불 교	199(33.7)
	종교 없음	188(31.9)
성별	남성	290(49.4)
	여성	297(50.6)
결혼형태	미혼	190(32.0)
	초혼	370(62.4)
	재혼	7( 1.2)
	사별	26( 4.4)
직업형태	농업	200(34.4)
	주부	85(14.6)
	은퇴·무직	24( 4.1)
	전문·경영	13( 2.2)
	사무직	47( 8.0)
	생산·기능·서비스 자영업 학생	30( 5.1) 48( 8.2) 128(22.0)

흥미로운 점은 이혼에 대해 이렇게 허용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으면서 동시에 그 다음 질문인 '요즘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이혼하는 경향이 있다'에 동의하는 비율 또한 도시와 농촌 모두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혼을 불가피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보지만, 최근의 이혼율 증가는 '요즘사람들이 너무 쉽게 이혼하는' 세태 때문이라고 보는, 약간은 부정적 시각에서 이혼을 바라보는 태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하겠다.

두 문항에 대한 응답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살펴보면, 농촌이 도시에 비해 이혼에 관하여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촌 거주자가 도시 거주자보다 이혼에 대한 태도가 상대적으로 덜 허용적인 것은 농촌지역 주민들의 보수적인 성향과 더불어 이혼율이 도시보다 농촌지역에서 더 낮다는 점, 그리고 이혼 후 겪게되는 어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접할 기

<표 3> 이혼에 대한 태도

문항	거주 지역	%						AR	$\chi^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불행한 결혼생활을 참는 것보다는 이혼하는 것이 더 낫다.	도시	1.7	10.9	17.5	51.1	18.9	70.0	54.99	
	농촌	8.1	19.2	16.9	40.0	15.9	55.9	***	
요즘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이혼하는 경향이 있다.	도시	0.3	4.9	14.8	63.8	15.9	79.7	55.92	
	농촌	1.0	2.4	9.6	55.0	32.0	87.0	***	

\* AR = agreement ratio: 문항에 대하여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라고 긍정적인 편의 응답을 한 비율

회가 농촌의 경우 더 제한적이라는 점과 연결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 2. 상황에 따른 이혼관

다음은 이혼의 직/간접적 원인으로 선행연구들에서 지적되는 10가지 상황을 가정한 후, 응답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혼을 선택 가능한 대안인 것으로 받아들이는지 살펴보았다(표 4).

가장 주목할만한 결과는 부부간 성격이나 가치관의 부조화, 인격과 감정의 무시, 애정의 결여 등 부부관계에서의 정서,심리적 영역에서의 문제로 이혼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상당히 높은 허용도를 나타내었다는 점이다. 최재울(1988)은 일본정부 총리부 청소년 대책본부(1982)에서 작성한 '부부는 어떤 이유가 있을 때 이혼해도 좋은 것인가'에 대한 각국의 조사결과를 비교 제시한 바 있다. 약 20년 전인 그 자료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이혼에 동의하지 않던 그 당시에도 한국인은 이혼을 가능하게 하는 사유로서 부부간의 성격 불일치를 가장 높게 지지하였고(34.7%), 한쪽에 애인이 생겼을 때(34.2%)와 같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다음엔 한쪽에 폭력이 있을 때(22.3%), 애정이 없어졌을 때(17.1%)의 순으로 나타나 그 때 이미 부부간의 관계에 비중을 두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자료와 본 조사결과를 비교해보면, 부부간에 성격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 이혼해도 된다는 항목에 지지한 비율은 약 35%에서 약 60%로, 애정이 없어졌을 때 이혼해도 된다는 항목에 지지한 비율

은 17.1%에서 58%로 증가하여, 지난 20여년 동안 부부 관계로 인한 이혼에 동의하는 태도가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결혼이 더 이상 가문 대 가문의 결합이라는 전통적인 의미를 갖는 제도가 아니라 애정을 중심으로 한 부부 두 사람의 관계가 중심이 되는 결혼이어야 하며 그것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에는 충분히 이혼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2배 이상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제 1999년 우리나라의 이혼사유별 이혼 수에서 부부간 불화로 인한 이혼이 76.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 신체적 결합으로 자녀출산이 불가능한 경우의 이혼에 대하여 허용도가 중간이하로 낮게 나타난 점도 한국 가족이 혈연중심성이 약화되고 부부중심의 우애적 제도로 성격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또 다른 결과가 아닐까 싶다.

배우자의 친족에 의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배우자가 자신의 친족을 학대할 경우 이러한 학대가 이혼을 결정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데 동의하는 비율이 높다는 결과도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과거에도 줄곧 가장 대표적인 이혼의 원인들 중 하나였던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서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도 이혼의 충분한 사유가 되는 것으로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런데 남편 외도에 대한 응답이 부인의 외도에 대한 응답보다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이중적인 성규범이 아직도 상당히 강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혼자의 이혼사유를 분석한 이현송(1999)도 우리사회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인

〈표 4〉 상황에 따른 이혼관

문항	거주 지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AR	$\chi^2$
부부간에 성생활이 원만하지 못하면 이혼할 수 있다.	도시	6.4	29.6	20.8	35.2	3.7	38.9	13.41**
	농촌	11.5	31.9	30.6	22.0	4.1	26.0	
배우자 때문에 가정에 경제적 파탄이 생긴 부부는 이혼할 수 있다.	도시	7.0	25.1	22.6	35.5	9.8	45.3	3.91
	농촌	8.3	28.7	20.8	32.1	10.1	42.2	
성격이나 가치관 등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부는 이혼할 수 있다.	도시	2.7	15.5	20.8	51.5	9.5	61.0	19.30**
	농촌	7.3	17.7	17.0	50.4	7.6	58.0	
상대방의 인격과 감정을 무시하는 부부는 이혼할 수 있다.	도시	1.8	9.4	13.8	58.0	17.0	75.0	32.17***
	농촌	5.2	17.2	12.2	51.7	13.7	65.4	
어느 한 쪽의 신체적 결함으로 인하여 자녀를 낳을수 없는 부부는 이혼할 수 있다.	도시	18.3	48.7	19.6	11.9	1.4	13.3	10.29*
	농촌	17.4	44.8	18.4	16.4	3.0	19.4	
서로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부부는 이혼을 할 수 있다.	도시	3.8	16.6	19.8	43.2	16.3	59.5	8.37
	농촌	6.4	18.9	17.9	43.7	13.2	56.8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이혼할 수 있다.	도시	3.5	16.0	22.1	41.8	16.3	58.1	18.80**
	농촌	7.1	22.1	19.9	37.2	13.7	50.8	
부인이 바람을 피우면 이혼할 수 있다.	도시	2.0	9.2	17.0	48.9	22.6	71.5	6.43
	농촌	4.2	10.3	16.0	48.0	21.5	69.3	
남편이나 부인이 시댁이나 친정식구를 괘시하거나 심한 학대를 한다면 이혼을 할 수 있다.	도시	2.2	10.3	23.6	47.6	16.2	63.8	44.93***
	농촌	4.9	22.2	21.5	37.7	13.7	51.4	
시댁이나 처가에서 괘시나 심한 학대를 받는다면 이혼을 할 수 있다.	도시	2.7	12.7	22.5	44.8	17.4	62.2	28.42***
	농촌	6.6	20.2	20.1	39.3	13.8	53.1	

\* AR = agreement ratio: 문항에 대하여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라고 긍정적인 편 의 응답을 한 비율

하는데 있어 남녀간의 이종차대의 적용이 뚜렷하게 관찰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상황에 따른 이혼관에 있어 도시와 농촌지역 응답자들의 태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배우자 때문에 경제적 파탄이 생긴 부부, 애정이 없는 부부간의 이혼 및 부인의 외도로 인한 이혼에 대한 허용도에 있어서는 도시와 농촌지역 응답자간에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도농간 차이가 크게 나타난 항목은 부부간의 원만하지 못한 성생활이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이다. 도시의 경우에는 부부간 원만치 못한 성생활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는 문항에 '그런 편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농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편이다' 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아 결혼생활에 있어 성생활이 차지하는 비중은 도시지역 주민들에게서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도시지역에서는 '상대방의 인격과 감정을 무시하는 부부' 나 '성격이나 가치관이 맞지 않는 부부' 의 이혼에 대해 농촌에 비해 매우 높은 동의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도시지역의 응답자들이 농촌지역 응답자들보다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감정을 배려하는 부부관계를 더 중요시함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또하나 주목할만한 결과는 부인의 외도로 인한 이혼에 대한 허용도에 있어서는 도농간 차이가 없는 반면,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에 대한 허용도는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도시지역에 비해 우리 농촌사회가 남성에게 관대한 이중적인 성규범을 더 강하게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농촌지역의 보수적 경향은, 신체적 결합으로 자녀 출산이 불가능한 경우의 이혼에 대한 허용도가 도시보다 높다는 결과와 배우자의 친족과의 문제로 인한 이혼에 대한 허용도가 도시보다 낮게 나타난 결과에서도 역시 찾아볼 수 있다.

### 3. 이혼고려경험 유무와 결혼지속 이유

다음은 본 조사대상자들이 실제 생활에서 이혼을 고려한 경험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태도조사가 많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피상적이고 일반적인 방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치우칠 가능성 등으로 실제 행동과의 연계성을 보여주는데 제한점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조사대상 응답자들이 실제 상황에서 이혼을 고려해 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왜 이혼을 하지 않았는지에 관한 정보는 이혼에 대한 응답자들 태도의 한 측면을 구체적 맥락과 연결시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

는 보완자료의 성격을 가질 것으로 보았다.

미혼자를 제외한 기혼자의 자료를 분석하여 이혼 고려여부를 탐색하여 본 결과(표 5), 전체 기혼자중 도시의 경우, 50.4%, 농촌의 경우, 40.6%가 이혼을 심각하게 생각한 적이 있거나 자주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혼자중 약 반수정도가, 이혼이라는 실제행동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삶 속에서 결혼 생활의 해체에 대한 욕구나 이혼의 필요성 등을 심각하게 생각한 경험이 있다는 것은 놀랄만한 결과이다.

그렇다면, 이혼을 실제 생활에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보았다. 도시 농촌 모두 '자녀 때문에'의 항목에 65%내외가 응답함으로써 '자녀'가 부부가 갈등상황에 있을 때에도 결혼을 지속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사회에서는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이혼 후에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과 자식에 대한 걱정이 이혼을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이나 최근 한국에서 결혼지속기간이 15-20년 이상 된 소위 황혼이혼이 증가하는 현상을 자녀들에 대한 부양책임이 거의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다려서 이혼

〈표 5〉 도시와 농촌 응답자의 이혼고려경험과 결혼을 지속하는 이유

문항	내용	도시	농촌	$\chi^2$
귀하는 이혼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다	49.6	59.4	12.35**
	생각한 적 있다	42.5	35.8	
	자주 생각한다	7.9	4.8	
	계	100	100	
이혼을 심각하게 생각해본 적이 있을 경우, 귀하가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모 때문에	3.3	1.4	8.07
	자녀 때문에	64.2	66.0	
	용기가 없어서	7.0	3.4	
	체면 때문에	3.3	2.0	
	살아온 정 때문에	18.1	19.7	
	경제자립이 어려워서	0.5	2.7	
	기타	3.7	4.8	
계	100	100		

을 실행하는 부부들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들봐주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불만족스러운 부부관계를 참고 버티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나 그러한 부담이 끝나는 시기에 불만족스러운 부부관계를 청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한경혜(1993)와 한경혜·김영희(1995)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 이혼한 부부들이 가장 걱정하고 어려워하는 문제도 '자녀문제' 였던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서구에서도 이혼이 불행한 결혼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인가 여부에 관한 논쟁의 핵심에는 '자녀의 복지' 내지는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다. 이혼 경험의 결과로 자녀들이 심리 사회적 장애를 경험하는 등 많은 부정적 영향에 노출된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이혼결정에 신중해야 된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자녀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불행한 부모로 남기 보다 행복한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견해도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다.

#### 4. 자녀와 관련된 이혼에 관한 태도

이상에서 우리는 도시와 농촌 거주자 모두 '불행한 결혼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이혼'에 비교적 허용

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자녀가 이혼을 막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함께 관찰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조사대상 응답자들은 이혼이 자녀에게 어떤 부정적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 이혼이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한, 이혼에 대한 허용적 태도는 '자녀가 있는 결혼관계'라는 구체적 맥락에서는 별 의미가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이혼한 가정의 자녀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에 대해 응답자들이 어느 정도 동의하는가를 알아보았다(표 6).

예상대로, 응답자들은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큰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으며 이혼 가정의 자녀에 대한 편견도 상당정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혼을 하면 자녀가 비뚤어지기 쉽다'는 항목에서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강한 긍정을 표했으며(Mean: 4.5, 80%내외), 과반수가 넘는 응답자들이 이혼을 하려거든 자녀가 다 성장한 후에 해야한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으며, 50% 내외의 응답자는 좋은 부모라면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더라도 이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다. 이혼 가족은 문제가족이고 자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며 그래서 자녀가 있는 부부는 참고 살아야 한다

〈표 6〉 자녀와 관련된 이혼에 대한 태도

문항	거주 지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AR	$\chi^2$
부모가 이혼을 하면 아이들이 비뚤어지기 쉽다.	도시	0.4	8.0	12.6	46.9	32.0	78.9	6.26
	농촌	0.3	5.1	11.8	52.1	30.7	82.8	
만약 이혼을 하려거든 자녀가 다 성장한 이후에 해야한다.	도시	6.7	23.2	19.5	35.7	14.8	50.5	14.06**
	농촌	9.6	19.8	13.7	39.6	17.3	56.9	
부모가 이혼을 한 사람은 자식들도 이혼하기 쉽다.	도시	7.8	25.7	25.3	32.2	9.0	41.2	6.36
	농촌	11.6	24.3	23.3	33.1	7.8	40.9	
내 아들/딸이 부모가 이혼한 가정의 자녀와 결혼하겠다고 하면 반대하겠다.	도시	6.9	22.7	25.0	31.5	14.0	45.5	16.08**
	농촌	10.5	27.0	17.5	30.4	14.7	45.1	
좋은 부모라면 배우자로서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도시	5.9	24.2	23.3	36.5	10.2	46.7	20.25***
	농촌	6.3	17.7	19.6	39.5	16.9	56.4	

\* AR = agreement ratio

는 시각은, 앞에서 제시한 '요즘 사람들이 너무 쉽게 이혼하는 경향이 있다'는 진술에 대부분이 동의한 결과에도 반영된 바 있다. 한편, 이러한 주도적인 경향에 반하여 이에 동의하지 않는 층도 관련문항에서 대부분 30%내외로 나타나고 있어 기존의 보수적인 시각에 반기를 드는 사람도 상당수 존재함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모가 이혼한 사람은 자식도 이혼하기 쉽다'거나 '내 아들/딸이 이혼한 가정의 자녀와 결혼한다면 반대하겠다'는 항목에 동의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50%를 밑돌고 있다. 즉, 이혼행동의 세대간 전이(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에 대한 믿음은 비교적 낮고, 부모의 이혼이 그 자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인식은 상당정도 공감대를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도시에 비해 농촌에서 이혼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농촌 거주자들은 부부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듯 하다. 농촌 응답자들은 좋은 부모라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경우 자녀가 다 성장한 후에 하는 것이 좋다는 쪽에 도시 응답자 보다 훨씬 더 많은 동의를 하고 있다. 한편, 이혼에 대해 농촌응답자보다 전반적으로 더 허용적인 태도를 보인 도시 응답자들이 '내 아들 딸이 이혼한 가정의 자녀와 결혼한다면 반대하겠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더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는 점이 주목을 끈다. 일반적 태도로서는 허용적이고 진보적 태도를 보이면서도, '내 자녀, 내 가족'에 해당되는 문제로 구체화되면 진보적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는 모순성이 드러나는 결과이다. 이혼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허용적인 방향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한 사람들과 가족들의 구체적 일상에서의 경험은 아직 다른 모습일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 IV. 결 론

이 연구는 이혼에 대한 태도에 대해 도시와 농촌을 비교함으로써 이혼에 대한 태도가 우리사회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이라는 지역적 차이가 이혼태도에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전반적인 이혼에 대한 태도에서 도시와 농촌 모두 '불행한 결혼을 참는 것보다 이혼하는 것이 낫다'거나 '요즘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이혼하는 경향이 있다'에 동의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 최근의 이혼율 증가에 대해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대세임을 인정하고 수긍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당사자들의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는 양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에 농촌과 도시지역 거주자간 차이가 있어 농촌의 경우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불행한 결혼을 참는 것보다 이혼하는 것이 낫다'는 문항에 찬성하지 않는 비율이 27%로서 도시의 13%의 2배가 넘는다. 이는 농촌인구중 많은 부분이 노령화되어, 연령의 효과가 있을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수치로서 도시지역 거주자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상황에 따른 이혼관에서는 이혼의 직접적이고 간접적 원인인 것으로 밝혀진 10가지 상황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혼을 선택가능한 대안으로 받아들이는지 살펴본 결과, 부부간 성격이나 가치관의 부조화, 인격과 감정의 무시, 애정의 결여 등 부부관계에서의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영역에서의 문제로 이혼하게 되는 상황에 대하여 매우 높은 허용도를 보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도시지역 거주자와 농촌지역 거주자 모두 결혼생활에 있어서 부부관계에 대하여 과거에 비하여 보다 많은 가치와 비중을 둔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서구와 같이 부부간의 정서적 연대에 근거한 부부간의 결속력이 결혼생활을 유지시키는 중요 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결혼생활 중 이혼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응답자가 4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들이 이러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이유로는 '자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아직은 자녀가 부부의 이혼에 강력한 방해요인(barrier)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자녀가 없는 신혼기에서의 이혼과 자녀가 성인이 되어 양육의 짐을 어느 정도 벗을 수 있게 되는 황혼기 이혼율의 증가현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혼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 비율에서 도시 거주자가 농촌 거주자보다 약 10%정도 높게 응답하고 있어 이혼에 대해 생각하는 경우가 도시 거주자인 경우에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도시와 농촌 거주자간 별 차이 없이 자녀 때문이라고 응답한 것을 보면 우리사회가 이혼에 관한 태도에서 상당히 허용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으나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여전히 매우 부정적이며 이러한 인식이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해 본 적이 있는 부부들의 이혼을 막는 가장 강한 제재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혼에 대한 태도의 도 농간 비교결과, 농촌지역 거주자들이 전반적으로 도시지역 거주자 보다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적 성 규범도 또한 도시보다 농촌지역에서 더 현저하게 나타났다.

다양한 이혼사유와 관련된 상황에 따른 이혼에 관하여 농촌주민의 태도는 도시지역 거주자보다 일관되지 못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이혼을 남녀간의 문제로 접근할 때에는 전반적으로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자녀와 관련된 부모의 역할로 파악될 때는 도시 거주자에 비해 보다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가족의 안정성과 자녀의 복지가 개인의 행복이나 부부관계보다 우선시된다는 전통적 의식이 농촌지역에 더 뿌리 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그런가하면 애정과 부부간의 관계적 문제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도시와 농촌지역간 차이가 관찰되지 않는 등 이혼에 대한 태도의 유사성도 상당정도 관찰되었다. 한국가족이 전반적으로

혈연중심에서 부부간의 애정을 중시하는 부부중심 가족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큰 물결에 있어서는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이 연구에서는 이혼에 관련된 다양한 질문에 대한 도시 및 농촌거주자들의 응답을 기초로 하여, 이혼에 대한 태도의 전반적 경향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태도에 있어서의 도농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따라서 연구의 초점 자체가 서술적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었으며, 학력, 연령, 결혼여부, 결혼의 질 등 다양한 응답자 특성에 따라 이혼에 대한 태도가 차이가 날 가능성을 탐색하지는 않았다. 도시와 농촌 거주자들 내에 존재하는 집단 내의 태도의 다양성과 이에 관련된 요인을 탐색하는 작업은 후속연구로서 진행중이다.

## ■ 참고문헌

- 권귀숙(1998). 제주도 이혼의 구조적 원인분석. 가족과 문화, 10(1), 135-175.
- 손승영(2000). 일본 가족가치관의 유지와 변형. 동덕여성연구, 5, 79-95
- 옥선화, 김주희, 박혜인, 신화용, 한경혜, 고선주(1998). 가족/친족구조의 해체와 재구성 I:서울시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1), 157-181.
- 옥선화, 김주희, 박혜인, 신화용, 한경혜, 고선주(2000). 가족/친족구조의 해체와 재구성 II:농촌지역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10), 157-181.
- 은기수(2001). 현대 한국사회의 가족가치관: 결혼에 대한 태도의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전기 학술대회 발표 논문.
- 이재경(2000). 성별화된 이혼과 여성. 가족과 문화, 12(2), 81-98.
- 이정숙(1992). 현대 가족문제와 이혼태도에 관한 연구. 호남대 논문집, 13, 211-237
- 이현송(1999). 주관적 이혼사유의 변화: 법원 자료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1(2), 73-98.

- 최재율(1988). 가족사회학. 전남대학교 출판부.
- 통계청(각년도). 인구동태 통계연보.
- 한경혜(1993). 한국이혼부부의 적응과 관련변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가족학 연구회(편). 이혼과 가족문제. 하우출판사
- 한경혜, 김영희(1995). 이혼여성의 전배우자와의 관계 및 협력적 부모역할에 관한 탐색적 연구. 가족학논집, 6, 103-128.
- 한국경제신문(2000년 9월 15일자).
- 한국여성개발원(1997). 1996 여성통계연보.
- Booth, A. and Amato, P. (1991). Divorce and psychological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2, 396-407.
- Wang, H. and Amato, P.R. (2000). Predictors of divorce adjustment: Stressors, Resources, and Defini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655-668.
- Amato, P. R. and Rogers, S. J. (1999). Do Attitudes toward divorce affect marital quality?. *Journal of Family Issues*, 20(1), 69-86.
- Glenn, N. (1996). The recent trend in marital succes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261-270.
- Hill, R. (1949). *Families under stress*. New york: Harper and Row.
- McCubbin, H. and Patterson, J. M. (1982). Family adaptations to crisis p26-47 in *Family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 Thornton, A. (1989). Changing attitudes toward family issue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873-893.